

산코안 광장

산코안 광장(산쿠안 광장이라고도 불림)은 우치야마 지구의 큰길과 평행하게 흐르는 강과 산 중턱에 있는 묘지 사이에 있습니다. 산코안(三空庵)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이곳에 있던 암자에서 따온 것입니다.

광장 한쪽에 있는 작은 불당에는 나무로 된 지장보살상이 서 있습니다. 높이 2.6m의 이 지장은 아리타초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, 근처에 있던 큰 감나무와 연관 지어 감나무 지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. 이 목조상은 1828년 8월 9일에 우치야마 일대를 덮친 분세이 대화재로 인한 피해를 극적으로 피했습니다. 이 마을에 살던 도쿠사부로라는 남자가 지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등에 짊어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가벼워져 달라고 빌었더니 신비하게도 지장이 가벼워져 옮길 수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이 지장의 불탄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.

또한, 광장 북쪽 산 중턱에 있는 묘지는 묘표의 글자가 금색인 점이 특징입니다. 이는 일본의 묘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며, 중국이 규슈 북부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